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일시 2023.12. 19.(화) 14:00~17:00

장소 프레지던트 호텔 브람스 홀

※ 온라인 동시 진행

웨비나 ID : 875 5090 7795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김봉옥입니다.

최근 UNESCO 및 WH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의생명과학기술 분야의 빠른 변화 속에서 국가 단위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과 대중의 참여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05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시부터 대통령 소속의 정부위원회로 법적 근거는 있지만, 그 정체성과 제한적인 역할 등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제8차 국가생명윤리포럼을 통해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미래 사회를 적절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우리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6.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김봉옥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발 표
14:00~14:05	개회사	김봉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14:05~14:10	환영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14:10~14:20	사진 촬영	
14:20~14:50	주제 발제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	김현철 (이화여대 법전문 교수)
14:50~15:20	주제 발제 2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	최경석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이화여대 법전문 교수)
15:20~15:50	Break Time	
15:50~16:50	패널 토의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교수, 제3기 국가위원회 위원) 유성희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원장, 제5기 및 現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이일학 (연세대의과대학 교수) 김나경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직무대행)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과장)	좌장: 이윤성 (서울대의과대학 명예교수, 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16:50~17:00	종합 토론	
17:00~	폐회	

※ 문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Tel. 02.737.8452 Email. joh0417@nibp.kr